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2.3.11

미 증시, 높은 인플레이 장기화 우려로 하락 후 낙폭 축소 마감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되자 하락 출발. 여기에 높은 수준의 물가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생각보다 매파적인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등 전일 상승 요인들이 대부분 반대로 전개되자 하락 지속. 더불어 러시아의 대 서방 국가들에 대한 비료, 목재 등 수출 중단 발표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 점도 부담. 다만, 장 후반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부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다우 -0.34%, 나스닥 -0.95%, S&P500 -0.43%, 러셀2000 -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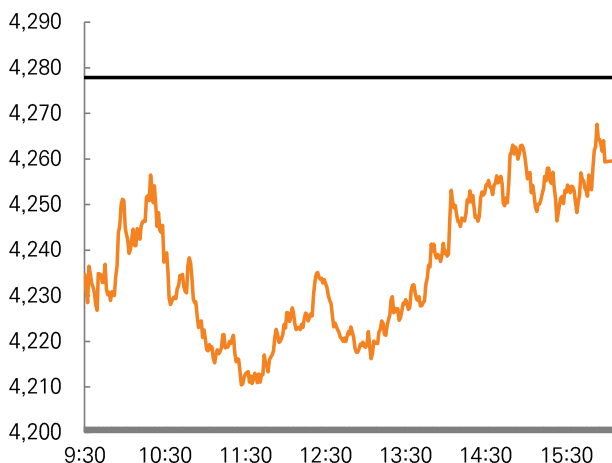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마이크론(-4.68%)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공정 필수소재 공급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했으며 이 여파로 AMAT(-2.84%), 인텔(-2.04%) 등도 동반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7% 하락. 테슬라(-2.41%)는 반도체 칩 부족과 알미늄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증가 우려가 부각되자 하락. 애플(-2.72%)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부 부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 아마존(+5.41%)은 1999년 두번의 주식분할 이후 처음으로 20:1 분할을 단행한 가운데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이에 힘입어 급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3.02% MSCI 신흥 지수 ETF는 1.8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0.0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하락. KOSPI는 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우크라이나 장관급 회담이 성과없이 마감하고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을 연장하는 등 온건한 정책 발표가 예상되던 ECB가 오히려 종료 시점을 앞당긴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러시아의 서방 국가에 대한 제품 수출 중단 발표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점도 부담. 한편, 마이크론(-4.68%)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로 급락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7% 하락한 점도 한국 증시에 부담.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하락 출발 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개별 산업에 대한 공급망 불안을 감안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의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680.32	+2.21	상해종합	3,296.09	+1.22
KOSDAQ	889.08	+2.18	홍콩항셍	20,890.26	+1.27
DOW	33,174.07	-0.34	베트남	1,479.08	+0.36
NASDAQ	13,129.96	-0.95	유로스톡스 50	3,651.39	-3.04
S&P 500	4,259.51	-0.43	영국	7,099.09	-1.27
캐나다	21,582.31	+0.41	독일	13,442.10	-2.93
일본	25,690.40	+3.94	프랑스	6,207.20	-2.8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러-우 회담 ②러시아 대 서방 제재 ③ECB ④CPI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회담이 터키에서 개최.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첫 고위급 회담으로 시장은 이번 사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그러나 회담 후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휴전 관련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발표했고, 러시아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하려는 것 같으며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을 언급. 다음 회담 개최 일정도 합의되지 않아 협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자 전일과 달리 위험자산 선호 심리 악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국가들의 제재에 대응해 통신, 의료, 자동차, 비료, 곡물, 전력, 목재 등의 수출을 연말까지 중단한다고 발표. 최근 유럽에 가뭄이 심한 가운데 러시아의 비료 수출이 중단될 경우 생산량 감축이 예상. 더불어 우크라이나 지역의 파종이 진행되지 못하고 파종을 하더라도 비료가 없다는 점에 주목. 이는 향후에도 식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 더불어 목재 수출 중단도 타이트한 공급을 감안 향후 미국 등의 주택 가격 급등을 야기시켜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결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 물가 상승을 높임

ECB 통화정책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기준금리는 동결한 반면, 자산매입 속도를 조절한 점은 매파적(기존 2분기 400억 유로, 3분기 300억 유로, 4분기 200억 유로 → 4월 400억 유로, 5월 300억 유로, 6월 200억 유로). 코로나 대응 비상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기존 발표된 것처럼 3월에 중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장에서는 ECB가 자산매입 종료 시기를 늦출 것으로 전망해왔는데 오히려 조기에 종료한다는 점에 부담. 물론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상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뤄지며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해 영향은 제한

한편, ECB는 올해 물가전망을 기존 3.2%에서 5.1%로 크게 상향 조정했고, 2023년에는 1.8%에서 2.1%로 2024년에는 1.8%에서 1.9% 상향 조정. 라가르드 총재도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경고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9%, 근원 물가지수도 6.4% 상승을 기록해 예상과 부합. 1982년 이후 최고치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상품가격 상승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그 수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 세부 항목을 보면 서비스 가격이 0.5%(yoy +4.4%) 상승해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크게 증가. 임대료는 6개월 연속 0.4% 상승. 대중교통 비용도 3.5%(yoy +8.3%) 상승하는 등 구조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폭을 확대했고, 미 국채 금리도 10년물이 2%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임

대체로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진전 없는 회담, 생각보다 매파적인 ECB 통화정책회의 등 전일 글로벌 주식시장 상승 요인들이 대부분 반대로 전개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7% 하락

마이크론(-4.68%)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공정 필수소재 공급 우려가 부각되자 급락. 이 여파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AMAT(-2.84%), 인텔(-2.04%) 등 대부분 관련주가 부진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7% 하락. 전일 바이든의 행정명령 이후 급등했던 암호화폐시장이 오늘은 대부분 되돌림을 보이며 하락하자 엔비디아(-1.55%), AMD(-4.13%), 코인베이스(-3.35%) 등이 부진. 테슬라(-2.41%)도 낙폭이 컸으며 GM(-1.02%), 포드(-0.24%) 등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 반도체 칩 부족과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증가 우려가 부각된 점도 하락 요인. 애플(-2.72%)은 전일 발표된 신제품이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일부 부품 공급 부족 가능성이 높아지자 하락

세일즈포스(-1.48%), 서비스나우(-4.64%) 등 소프트웨어 업종은 금리 상승 여파로 매물 출회. 반면, 아마존(+5.41%)은 1999년 두번의 주식분할 이후 처음으로 20:1 분할을 단행한 가운데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자 이에 힘입어 급등. 엑스모빌(+3.10%), 할리버튼(+8.93%) 등 에너지 및 서비스 업종은 고유가 시대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상승. 코르테바(+4.00%), 모자이크(+7.74%) 등 비료 업종은 러시아의 비료 수출 중단 소식에 상승. 뉴코(+2.73%) 등 철강업종, US스틸(+7.32%) 등 철강업종은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른 철광석, 철강제품 가격 상승 기대로 상승. 클라우드스트라이크(+12.50%)는 견고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99	대형 가치주 ETF (IVE)	-0.12
에너지섹터 ETF (OIH)	+4.55	중형 가치주 ETF (IWS)	+0.04
소매업체 ETF (XLY)	+0.71	소형 가치주 ETF (IWN)	+0.21
온라인소매 ETF (EBIZ)	-4.62	대형 성장주 ETF (VUG)	-0.94
금융섹터 ETF (XLF)	-0.84	중형 성장주 ETF (IWP)	-0.69
기술섹터 ETF (XLK)	-1.75	소형 성장주 ETF (IWO)	-0.6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3.22	배당주 ETF (DVY)	+0.17
클라우드 ETF (CLOU)	-1.83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12
미국 리츠 ETF (VNQ)	+0.25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93
주택건설업체 ETF (XHB)	-0.70	미국 국채 ETF (IEF)	-0.46
바이오섹터 ETF (IBB)	-1.01	하이일드 ETF (JNK)	-0.76
헬스케어 ETF (XLV)	-0.04	물가연동채 ETF (TIP)	-0.22
곡물 ETF (DBA)	-0.41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14
반도체 ETF (SMH)	-2.16	모멘텀 ETF (MTUM)	-0.4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85.53	+3.07	+5.69	+11.81
경기소비재	1,339.59	+1.16	-2.31	-10.18
유틸리티	357.03	+0.73	+1.81	+2.27
부동산	289.38	+0.36	-0.06	-2.56
소재	516.35	+0.18	-1.26	-4.23
헬스케어	1,511.86	-0.03	-1.51	-3.30
산업재	832.65	-0.12	-1.89	-4.00
커뮤니케이션	223.80	-0.75	-2.66	-8.30
금융	608.28	-0.80	-3.44	-10.79
필수소비재	753.27	-0.89	-4.55	-5.28
IT	2,570.38	-1.76	-3.79	-10.7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하락 출발 후 반도체, 자동차 업종 변화에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는 3.02% MSCI 신흥 지수 ETF는 1.8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30.0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92% 하락. KOSPI는 0.7%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상품선물시장이 안정을 보인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지자 상승. 특히 선물옵션 만기일을 맞아 기관 특히 금융투자의 적극적인 순매수에 기반한 수급적인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이에 힘입어 달러/원 환율도 8.7원 하락한 1,228.30원을 보인 가운데 KOSPI, KOSDAQ 모두 2%대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장관급 회담이 성과없이 마감했고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을 연장하는 등 온건한 정책 발표가 예상되던 ECB가 오히려 종료 시점을 앞당긴 점은 한국 증시에 부담. 특히 러시아의 서방 국가에 대한 제품 수출 중단 발표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점도 투자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한편, 마이크론(-4.68%)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소재 공급망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로 급락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7% 하락한 점도 한국 증시에 부담. 물론, 네온가스 등은 재고가 여전히 많이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7% 내외 하락 출발 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개별 산업에 대한 공급망 불안을 반영해 반도체, 자동차 업종 등의 변화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결과

높은 수준의 미국 물가 상승률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0.6%)나 예상(mom +0.7%)을 상회한 전월 대비 0.8%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예상에 부합한 7.9% 상승.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발표(mom +0.6%)를 하회한 전월 대비 0.5% 상승해 예상과 부합. 전년 대비로도 6.4% 상승해 예상과 부합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 발표(21.6만 건)나 예상(21.8만 건)을 상회한 22.7만 건을 기록. 4주 평균은 지난주 발표된 23만 5백건을 상회한 23만 1,250건을 기록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채 금리,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상승 지속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장관급 회담이 성과없이 마감하자 상승하기도 했으나, 러시아가 여전히 계약 이행을 위해 제품을 100% 채워 넣었다고 발표한 점, OPEC 일부 국가들의 증산 가능성이 재차 부각된 점, 그리고 이란 핵 합의 복원 회담 기대 등으로 재차 하락 전환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달러화는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 유로화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조기 종료 발표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하락. 라가르드 ECB 총재가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며 단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가 부담이나 점차 안정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여타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임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힘입어 상승. 더불어 이번 지수가 최근 상품 선물 시장의 급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한편, 3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30배)을 상회한 2.46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3.4%)을 상회한 71.5%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강했으나 영향 크지 않음

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회담이 성과없이 마감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강세. 구리 및 비철금속은 알루미늄이 우크라이나 이슈로 강세를 보이는 등 관련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곡물은 옥수수가 긍정적인 수출 보고서와 에탄올 생산에 따른 수요 증가 소식에 급등. 대두는 브라질 작물 생산 감소 전망에 상승. 밀은 높은 가격에 따른 이집트 등의 수입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자 급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4.48%, 철근은 0.16%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106.02	-2.47	-1.53	Dollar Index	98.569	+0.61	+0.80
브렌트유	109.33	-1.63	-1.02	EUR/USD	1.0984	-0.83	-0.74
천연가스	4.65	+2.76	-1.50	USD/JPY	116.11	+0.24	+0.56
금	2,000.40	+0.61	+3.33	GBP/USD	1.3084	-0.74	-1.98
은	26.26	+1.70	+4.14	USD/CHF	0.9305	+0.44	+1.45
알루미늄	3,427.50	+2.59	-3.96	AUD/USD	0.7360	+0.52	+0.42
전기동	10,117.00	+1.15	-0.48	USD/CAD	1.2772	-0.29	+0.72
아연	3,863.00	-1.95	+0.05	USD/RUB	133.5000	-2.12	+21.92
옥수수	755.75	+3.10	+1.07	USD/BRL	5.0188	+0.14	-0.17
밀	1,087.00	-9.53	-4.14	USD/CNH	6.3278	+0.07	+0.08
대두	1,686.25	+0.87	+1.11	USD/KRW	1,228.30	-0.70	+1.84
커피	224.20	-2.22	+0.58	USD/KRW NDF1M	1,230.08	+0.51	+1.8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990	+3.68	+14.94	스페인	1.265	+12.40	+26.50
한국	2.721	+0.40	+10.90	포르투갈	1.129	+13.10	+27.00
일본	0.194	+2.70	+1.70	그리스	2.540	+16.90	+17.70
독일	0.274	+5.80	+25.40	이탈리아	1.900	+22.30	+33.1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